

부산의 노골적 구매, 30위 '벽' 뚫을 수 있을까?

<글로벌 금융센터지수>

이달 중 국제금융도시 순위 발표
진흥원, 지연과 잇달아 공동 행사
3년간 30위권 갇힌 순위 영향 분석
진흥원 "순위와 상관없는 연구"



이달 중 국제금융도시 순위 발표를 앞두고 부산시가 순위 선정 기관에 '리브콜'을 보내 순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지연과 개최한 웹 세미나.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제공

이달 중 국제금융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글로벌 금융센터지수(GFCI) 발표를 앞두고 부산이 '노골적 구매'를 펼치고 있다. 지수 발표를 주관하는 기관과 최근 들어 공동 세미나 등을 잇달아 진행하며 부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3년간 30위권 인근을 벗어나지 못했던 부산시는 20위권 진입을 노리지만, 국제 순위보다는 문헌 혁신지구 기능 강화, 글로벌 금융 허브 도시에 맞는 방향성 설정 등 금융도시 내실 갖추기를 우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7일 부산시 출자 기관인 부산국제금융

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오는 11일 부산 글로벌 금융허브 설명회를 웹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한다. 설명회는

런던 소재 컨설팅 기관인 지연과 진흥원이 공동 주최한다. 행사에서는 지연 CEO가 격려사를 진행하고 진흥원이 부산의 글로

벌 허브도시 조성 계획 등을 소개한다.

올해 들어 진흥원은 지연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진흥원은 지연과 웹 세미나 형태로 지난해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한 '부산의 해양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 진흥원은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웹 세미나를 진행한다.

또 진흥원은 이달부터 매월 지역의 뉴스레터에 부산 소식을 게재한다. 지역의 금융센터지수 발표도 오는 9월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사실상 지연에 '부산 알리기'를 집중하는 모양새다.

금융권에서는 부산 국제금융도시 연구, 발전 방안 도출 등의 업무를 맡는 기관인 진흥원이 지연에 공을 들이는 것이 금융센터지수와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지연은 금융센터지수를 매년 3월과 9월 발표하고 시는 이 수치를 금

용도시 부산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센터지수는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138개 통계지표를 활용해 △인적자본 △기업환경 △금융 부문 발전 △기반시설 △평판·일반요소 5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정성평가는 24개월 이내 세계 2000여 명의 금융전문가 대상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다.

가장 최근 발표인 지난해 9월 발표에서 부산은 704점으로 33위에 올랐다. 부산은 2021년 하반기부터 33위→30위→29위→37위→33위로 순위가 큰 상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달 발표에서 20위 중반권 진입을 희망하지만, 6개월 전 최근 발표 때와 달리 국제금융도시 내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 비약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산시 금융 싱크탱크로 불리는 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진

흥원은 2020년 부산시, 부산 이전 금융공기업 5곳과 부산은행, 해양진흥공사로부터 매년 27억 원의 부담금을 받아 운영된다. 매년 3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지만 설립 4년 동안 뚜렷한 도시 방향성 제시나 어젠다 세팅보다는 해외에 부산 알리기에 집중해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진흥원이 연구자들로 구성된 기관인만큼 국제 금융도시 부산을 알리는 역할보다는 시, 금융공기업 등에 어젠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은 "지역 순위를 발표하는 기관이지 선정하는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순위에 얽매이지 않고 지연이 금융 중심지에 관심 있는 기관, 도시에 영향력이 있는 만큼 함께 공동 연구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컨선 9월 뜬다

팬오션·현대미포조선 등 참가
민관 협력해 국제항로 첫 실증

민관이 힘을 합쳐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선박'인 1800TEU급(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 건조가 완료됐다. 이 선박은 9월부터 국제항로에서 본격적인 자율운항기술 실증에 돌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송명달 차관이 8일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열리는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실증하는 '1800TEU 컨테이너선 명명식'에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실증 지원 선사인 팬오션, 건조사인 현대미포조선의 대표 이사 및 관계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핵심 기술을 이 선박에 탑재해 실증하게 된다. 명명식 이후 선박은 자율운항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1년간 국제항로에서 본격적인 자율운항기술 실증에 돌입한다. 그간 국내에

서 민간 조선사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이 활발히 이뤄져 왔다. 그러나 민관이 협력해 자율운항해, 디지털 기반 기관 모니터링, 통신·보안기술 등을 통합한 자율운항 시스템을 장기간에 걸쳐 국제항로에서 실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해수부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을 개발(2020~2025년, 사업비 1603억 원)했고, 개발된 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해 2020년에 해수부 주재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과 선사인 팬오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선사와 조선사는 설계 단계부터 해당 선박에 자율운항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송명달 차관은 "이번에 명명식을 가진 실증 선박을 제공해 주신 선사에 감사드립니다"며 "실증 운항을 통해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해 미래 해양 모빌리티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

대성문, 에코델타 데이터센터 사업단 출범

다양한 분야 전문 인력 배치
행정 절차 마무리·내년 착공
"AI 시대 맞춰 변화 나설 때"



지난달 28일 부산 라발스호텔에서 열린 대성문 창립 21주년 기념식. 대성문 제공

부산 지역 중견 건설사(주)대성문이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자체 사업단을 출범했다.

대성문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단을 창단해 에코델타시티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대성문은 사내 사업단에 프로젝트 매니저(PM)와 건설 사업 관리(CM), 전산 시스템 관리(SI) 등 전문 인력 7명을 배치한다. 이들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고효율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개발하는 데 전력투구한다.

그간 주택·호텔 건립 사업에 주력했던

대성문은 이번 데이터센터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뛰어든다. 이례적으로 자체 사업단을 발족해 인공지능과 IT 분야 특성에 맞는 센터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사업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자문도 받을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참여는 부산 건설 업계에서 처음이다. 대성문은 설계와 건축 인허가 등 연내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성문 사업단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는 4개의 출자사와 분야별 전문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PFV(프로젝트금융투자)를 설립했다"며 "성공적인 추진을 발판으로 향후 대성문의 기업 가치는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성문은 올해부터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을 경영 전략으로 내세웠다. 디지털 트윈을 건설 분야에 적용하면 프로젝트의 모든 정보를 가상 세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정보 모델링(BIM),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면 계획,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 모든 단계에서 효율성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다.

채창호 대성문 대표이사는 "과거의 익숙한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대변화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jyoung@

동남권스타트업성장센터 신임 센터장 강석호



동남권스타트업성장센터 신임 센터장에 강석호(사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프) 동남권협의회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7일 코스프 동남권협의회에 따르면,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회원사 소통 강화를 목표로 동남권스타트업성장센터를 신설했고, 신임 센터장에 강석호 동남권협의회 사무총장이 겸임한다고 밝혔다.

출범 5주년을 맞은 코스프 동남권협의회는 코스프의 유일한 지역협의회이자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창업가 커뮤니티로, 현재 350개 이상 회원사가 참여하는 지역 대표 커뮤니티로 활약하고 있다.

강석호 센터장은 2011년 국제회의 전문회사 마이스부산을 설립했다. 부산 관광마이스 분야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태계 동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가다. 2019년부터는 동남권협의회 전신인 부산협의회 출범을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남형욱 기자 thoth@

부산상의 특별의원 20명 오늘 선거 통해 선출

차기회장 추대 합의로 당초 무투표 당선에 예상됐던 제25대 부산상공회의소 의원 선거가 임종표 대표 20명을 선출하는 특별 의원에 한해 치러지게 됐다.

부산상의 특별 의원 선거 후보에 나선 23명 가운데 7일 오후 6시까지 사퇴 의사를 밝힌 후보가 한 명도 없어 8일 선거를 통해 특별 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특별 의원의도 치열한 조율을 거쳐 무투표 당선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부 단체들의 내부 의견이 갈리면서 막판에 일부 후보들이 사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회장으로 추대돼 조율에 적극 나섰던 양재성 은산해운항공 회장은 "특별 의원은 협동조합이나 협회 등 단체 차원으로 활동해야 하니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체에 속해있는 기업들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대표들로서 사퇴가 쉽지 않아 선거를 통해 의원을 가려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특별 의원의 투표 수는 91표에 불과해 5표만 얻어도 당선 인정권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여진 기자 onlypen@

고리원전 찾은 산업장관 "원전은 민생"

지난달 토론회 후속 조치
제어실·터빈룸 등 직접 점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이하 고리본부)를 찾아 가동 원전의 안전관리 실태와 계속운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안 장관이 방문한 고리본부는 1978년 4월 한국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가 있는 원전 본부다.

이곳에 있는 총 6기의 원전 가운데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고, 고리 2호기는 작년 4월부터 운전을 멈추고 계속운전을 심사 중이다. 현재 고리 3·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등 4기는 가동 중이다.

고리본부의 총 설비용량은 0.587GW(기가와트)인 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 4.55GW 규모에 달한다.

안 장관은 지난달 22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생태계 질적 고도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4조 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날 일정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안 장관은 현장에서 고리본부의 설비 현황과 계속운전 등 중요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신고리 2호기 주 제어실과 터빈룸 등을 직접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원전의 안정적 역할을 위해 현장에서 안전 최우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금리 & 환율 | 해외송금, 환전은 역시! BNK 부산은행

◇국내외 금리·금값(7일)			◇원화환율(7일)			
종류	금일 시세	전일 대비	통화	기준율	실매	판매
국고채(3년)	3.321	-0.004	미국 달러	1330.90	1354.19	1307.61
국고채(5년)	3.364	0.002	일본 100엔	896.02	911.70	880.34
회사채(3년)	3.959	-0.003	EURO 유로	1450.82	1479.11	1422.53
CD(91일)	3.68	0.00	중국 위안	184.54	195.61	173.47
동안채(1년)	3.397	0.001	영국 파운드	1695.04	1728.09	1661.99
한은기준금리	3.50	0.00	캐나다 달러	985.01	1004.22	965.80
국민주택(1종(5년))	3.526	0.003	스위스 프랑	1509.65	1539.09	1480.21
TERM SOFR(3개월)	5.3245	-0.0018	홍콩 달러	170.19	173.51	166.87
미국 TB(30년)	4.03	0.05	호주 달러	876.00	893.08	858.92
금 현물(3.75g(온)/원)	346.238	4.050	인도 100루피	8.50	9.52	7.48
※ 손목 가늠은 한국거래소 KRX공시가격 기준.			태국 바트	37.40	39.64	35.16
			※ 미국 달러/일본엔 148.53			(내국채선언환)

한우 반값에 사들까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농협형 하나로마트에서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진행한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한우를 구입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진행된 한우. 

예탁원 "2026년까지 전 상장사 전자주총 도입"

주총 전 과정 디지털화 방침
5월 28일 미국 결제 변경도 대응
신종증권 전자등록도 상반기 개시

한국예탁결제원이 2026년까지 주주총회 전 과정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2026년까지 전체 상장 기업에 이같은 서비스 도입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6일 한 국예탁결제원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전자주총제도 도입과 공모매도 제도 개선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와 주주권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탁결제원은 전자주총회 안착

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자주총회는 주주 전부 또는 일부가 주총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통신 수단으로 출석하는 것이다.

이 사장은 "전자투표 및 전자지급 업무를 결합해 주주총회 전 과정 디지털화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증권정보, 증권대행 업무와도 연계해 향후 '종합 투자자 지원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예탁결제원은 오는 5월 28일부터 미국 주식 시장의 결제 주기가 '거래 체결일(T)+2일'에서 T+1일로 단축되는 만큼 투자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 직원들의 조기 근무와 토요일 근무 등 업무 운영시간을 변경한다. 1시간 안에 약 7만 건의 결제 지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조각 투자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계약증권 전자등록 시스템도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시장 개설 시기에 맞춰 올 해 상반기 중 개시할 계획이다. 기존 증권시장에 없던 조각 투자 상품은 신종증권으로 묶여 발행된다.

8일 계좌관리기관 및 조각 투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종증권 전자등록 시스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 등을 청취한다.

이 사장은 "예탁결제원은 신종증권 전자등록기관으로서 토론회 증권시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분산원장 기술 내재화를 추진해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용 기자